

• 타운뉴스칼럼

말

인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친구의 초청으로 어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친구도 그 모임에 참석한 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날 나오기로 한 사람들 중,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이 자리에 앉기 무섭게 내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다.

이름을 밝히자 무슨 일을 하느냐? 언제부터 했냐? 어느 대학 나왔냐? 어느 고등학교 졸업했냐? 나중에는 초등학교까지 밝히게 되었다. 이어서 청문회 하듯이 질문 공세가 한동안 계속되었다. 한국에서 어디 살았냐? 몇 년도에 미국에 왔냐? 미국에 와서 처음에 무슨 일을 했냐? 지금 어디에 사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한 분이 내게 몇 살인가 물었다. 내가 나이를 밝히자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도 돌아가면서 자기 나이를 밝혔다.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나보다 두 살 위이고 나머지 분들은 한두 살 나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이었다.

친구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자주 모임을 가졌고 자신은 최근에는 그 모임에 합류했으며 모임에 참석하면서 가장 연장자인 분하고는 대학 선후배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나만 그분하고 아무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게 '어느 안씨냐?' 고 물으면서 자기는 순흥 안씨라고 했다. 나도 순흥 안씨라고 하니 그 연장자 분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최고 연장자인 분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사이임이 확인됐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모임을 이끌고, 모임 참석자들은 그분을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이 농담 비슷하게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체력이나 기력이 쇠해졌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아이 뭐 우리 나이에 한두 살 차이는 차이도 아니다. 아주 젊어 보이신다" 고 내 편에는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했는데 두 살 차이니까 맞먹어도 괜찮다는 말로 들었는지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모임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때까지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했는데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실수를 한 셈이었다.

얼마 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맥도날드 아침 모

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만날 때마다 시켜 먹는 버거를 하나씩 들고 먹는데 연장자 한 분이 한 입 베어 드시며 참 맛있다고 했다. 나도 덩달아 아주 맛있다고 맛장구를 쳤다. 그때 한 분이 말했다. 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맛은 없다고 했다.

그러자 나도 맛이 없어졌다. 그러나 입 밖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때 맛있다고 말했던 어른신이 '그 말을 듣고 맛이 없어졌다' 고 말했다.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다. 맛있다고 말 한 분은 정말로 맛이 없다고 느끼고 솔직하게 말한 것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고 맛있다고 말한 사람이 거짓말로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거짓말을 했는가 아니라 누가 즐거운 분위기를 깨는 말을 했느냐이다.

사람들은 음식이 정말 맛있을 때만 맛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맛있다는 기준이 조금씩 다른 까닭도 있지만 그보다는 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분위기에서 먹느냐에 따라 느끼는 맛의 차이도 있기 때문이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리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음식도 그 음식을 먹을 당시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먹으며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었던 기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찌 되었건, 맛과 상관없이 우리들은 버거를 하나씩 다 먹었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웃다가 헤어졌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듣는 사람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말하고 듣는 사람의 관계, 말을 주고받는 상황, 대화의 목적 등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툭 던지는 말은 실수를 불러오기 십상이다. 말도 아껴야 한다. 꼭 해야 할 말이라면 가능한 한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듣는 사람의 거스름이 없고 개인과 사회를 더 밝게 만들 수 있다.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오해와 불신도, 신뢰와 유쾌함도 결국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리라 다짐한다.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제1514호 목차

- 타운뉴스 칼럼 13
- 커뮤니티 소식 15,17
- 세상에 이런 일이 19
- 나는야 1.5세 아줌마 20
- 법률 21
-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23
- 전문인 칼럼 26,27,40
- 숨은그림 찾기/답, 낱말 퀴즈/답 28/53,28/55
- 건강 37,40,41
- 깔깔 38
- 부동산/경제 39
- 자동차 43
- 한인업소 안내지도 44,46,60,62,64
- 사진여행 45
- 요리 47
- 종교 50
- 연예 51,53
- 안내광고 54,55
- Domestic 56
- 여성 59,61

역학의 관점에서 본 자녀의 적성과 전공은 무엇이 최선일까요?
건강운, 재물운, 결혼운, 재능운, 풍수, 작명

714.623.7005
전화 상담/예약필수 @scarletsun27 Lindam22

기주장익시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대표: 정영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EL (562)622-9393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www.timkimdental.com

터스틴

김건중 종합치과

39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 및 4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

Our clinic is DISINFECTED and SAFE to VISIT

일반·미용치과 전문

Maria Capiral, DDS
William Wang, DDS
Diemphi Nguyen, DDS

교정치과 전문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임플란트/구강외과 전문

Timothy Kim, DDS, MS, Ph.D

뼈가 부족한 분에서도 자가혈에서 채취한 PRP와 CGF를 이용한 뼈이식과 임플란트 수술 가능

-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무출혈·무통 잇몸치료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tel. 714-760-4988 949-679-6000
(San Diego) 760-757-9876 760-479-9876



NEW LOCATION TO BETTER SERVE YOUR DENTAL NEED

KEON-JUNG 'TIMOTHY' KIM
구강외과/치아이식 수술전문 ORAL SURGERY
D.D.S., M.S.D., Ph.D.

-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
- 인천 중앙 길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
- 대한 구강악안면 상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
-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 치아이식과 임상과장
- 미 치아이식학회 (AAID, AO)회원
- ADA, CDA, OODS, KADA 회원